

追慕辭

김영일 (광복회장)

오늘, 우리는 민족의 참된 지도자로서 존경과 흠모를 한 몸에 받으셨던 古下 宋鎮禹 선생님의 탄신 119주년을 맞이하여 선생님의 유훈을 널리 기리고, 동호직필의 참 언론인정신을 본받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유년시절, 항일 의병대장이셨던 기삼연 의병장께 한학을 깨치신 선생님께서 일본유학을 마치고, 귀국하여 이듬해 仁村 金性洙 선생이 중앙중학교를 인수하게 되자, 교장에 취임, 학생들에게 민족의식을 불어 넣는 데 주력하셨습니다. 3·1독립운동 때는 1년 반의 옥고를 치르고 출감하여 같은 해 동아일보 사장에 취임하셨고, 이후 30여년 간 사장·고문·주필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오직 민족의 완전한 자주독립과 단결을 최고선으로 삼았던 선생님의 민족주의 사상은 민족자결과 3·1독립운동의 큰 조류를 타고 우리 민족의 마음속에 전해졌습니다. 특히 김구 선생의 어머니이신 광낙원 여사를 아들의 망명지로 건너가게 뒷바라지하시고, 당시 종로경찰서를 폭파한 金相玉 의사의 아들을 후일 당신의 신문사에 입사시킨 일 등은 독립운동자들에 대한 선생님의 존경심과 남다른 민족의식이 읽혀지는 證左임이 분명합니다. 선생께서는 8·15 광복 후, 건국준비위원회와 맞서 민족주의 세력을 규합하여 한국민주당을 결성하시고, 수석총무가 되어 미군정에 협력하시다가 뒤이어 환국한 李承晩 박사와 임정요인들과 함께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서 광복직후 서거하시는 그날까지 누구보다도 폭넓은 인간관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추진세력의 집결에도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셨습니다. ‘相生과 疏通’이 시대적인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요즘, 선생님께서 가지셨던 관용과 리더십은 오늘날 사회지도층들이 진정으로 갖추어야 할 필수 덕목으로서 밝은 빛을 발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언론인으로서 대기자이셨고, 국내 독립운동의 지도자로서 일제에 의해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갖은 협박과 회유를 받으시면서도 민족 자주독립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던 항일투사이셨지만, 안타깝게도 그토록 염원하셨던 광복된 조국에서 얼마 살아보시지도 못한 채, 1945년 12월 30일 고향의 총탄에 쓰러지고 마셨습니다. 우리 민족 자주독립과 참 민족언론의 영원한 사표가 되신 古下 선생님이시어! 지금, 우리 국민들은 미국발 세계경제 위기로 인해 많은 어려움

을 겪고 있습니다. 부디 선생님의 애족정신을 본받아 우리 모두가 현재의 경제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천상에서 陰佑하여 주옵소서. 삼가 선생님의 유덕을
기리며, 옷깃을 여미고 명복을 빕니다. 영면하옵소서.

2008. 5. 8

光復會長 金永逸